

보도자료

ifez 인천경제자유구역
Incheon Free Economic Zone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10. 6.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미디어문화과
담당	과장 지원찬, 문화MICE팀장 김선영, 담당 손병락(032-453-7872)

파란 가을 하늘 아래 연 날려볼까?

인천경제청, ‘송도국제도시 바람의 연 축제’ 8~9일 송도달빛축제공원서 개최
연날리기 체험·시연, 드론 레이싱, 가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

- 형형색색의 연을 청명한 하늘로 날려 보내며 가을 정취를 느끼는 축제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도시 지정을 기념하고 개청 19주년을 맞아 오는 8~9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‘송도국제도시 바람의 연 축제’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.
- ‘연날리기’는 우리고유의 민속놀이이자 세계 각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통문화로 국제도시 송도를 둘러싼 주변 경관과 송도의 바람을 활용한 연날리기 놀이를 통해 비상하는 국제도시 송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.
- 무료 관람인 이번 행사의 첫날인 8일에는 버스킹 공연과 오징어 게임을 비롯 김필, 백지영 등 유명 가수들이 개막식 축하 공연을 장식하며 둘째 날인 9일에는 연날리기 체험과 시연, 드론 레이싱·전시 등이 이어진다. 또 인천다문화합창단과 더 블리스 코리아 등이 다채로운 폐막식 공연을 펼친다.

-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국악합창단과 앙상블 더류, 해양경찰관현악단 등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 무대와 대형 연과 다양한 연 날리기 시연 전통문화, 음식체험 등을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.
-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뒤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이번 행사를 위해 글로벌시민협의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준비를 거쳤다.
-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“이번 축제가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연을 하늘 높이 띄워 보내며 액운을 실어 멀리 보내고 청명한 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